

표지이야기

임희진, 비람바이, 와트만지에 천연염색(구아슈), 130X97cm, 2020.
미국 아델파이 대학교 대학원(MA)석사 졸업, 미국 롱아일랜드대학교 대학원(MFA)석사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박사수료, 제42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수상, 개인전&기획초대전 28회, 현재 U.S.A NEWYORK E. O. S Director, 한국 ETHEREAL ART / 에더리얼아트 대표, Gallery 리유 관장, 광양평생교육관 서양화 강사, 보성 공공도서관 서양화 강사, 담양 공공도서관 서양화 강사.

2	‘창’을 열며 특별법의 세상	김덕진
3	특집기획_ 위기의 시대 2020, 광주에게 묻다 2020 문화예술 평가와 전망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청년문화기획의 영역과 한계, 그리고 도약 청년문화가 살아남는 법 광주는 지금 관광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김지원 이당금 김성환 윤현석 조현희
14	문화인 탐구생활 전라도 사투리보다 구수한 배우 지정남	이지호·지정남
19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맑고 깨끗한 노래「소쇄원48영」	임준성
22	문화진단 전남·일신방직 공장 터를 바라보며	박홍근
24	문화현장 휴먼 미디어시티 광주(Human Media City, Gwangju)를 꿈꾸다 코로나 시대의 독서모임, 하나 아렌트를 읽는 시간	진시영 이은경
28	문화청년그룹 사투리는 그저 촌스럽기 만한 말이 아니다	김효미·김진아
30	문화리뷰 거리두기 형 문화생활의 새로운 방향, ‘2020 양림골목 비엔날레’	한희원
36	문화특독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했나 성평등의 관점으로 본 오늘날의 사회	김영순 백희정
40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특별법의 세상

김덕진_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재단 부이사장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대화를 한다. 이견 이렇고 저견 저러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말을 한다. 그런데 접점을 못 찾거나 대화 도중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면, 고성이나 욕을 해대고 주먹질까지 한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 당사자나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보복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여 책임을 물으려 한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대화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만, 어떤 이는 대화로 해결을 못하고 폭력이나 법에 호소하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평화적이고 형평에 입각한 대화와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며 이를 선언적으로 명시한 헌법(憲法)을 만들었다. 그리고 헌법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별도의 룰을 영역별로 또는 사안별로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를 법(法)이라고 한다. 결국 세상은 헌법과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든다. 우선 국회의원이 발안하여 입법(이를 의원 입법이라 함)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되어 색깔이 다양하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발안하여 입법(이를 정부 입법이라 함)을 하는데, 정권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수이다. 더군다나 어제 만들어진 법을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고치거나 폐기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법의 조문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지금 시점

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시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서 시간을 보낸 후 ‘완벽한’ 법을 제정할 수도 없다.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특별법(特別法)이다.

그래서 법에는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특별법은 문자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며,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많으면 어느 한쪽만 수혜를 입는 등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생각차이로 해결할 기미가 약하고 기다릴 시간마저 없는 광주 5·18, 제주 4·3이 특별법 손을 거쳐 ‘일단락’ 되었다. 최근에는 여순 10·19가 특별법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택건축이나 공항건설마저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비추면 해결될 일을 해결사 같은 특별법에 기대어 마무리하려고 한다.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마저 특정 집단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만 하니 자고나면 생기는 작금의 특별법 세상, 다소 천박해 보인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한국 현대사의 한 비극이 해원(解冤)의 세상으로 날개 짓하기를 기대한다. 그 날개가 광주와 함께 할 것도 기대된다.

특집기획

위기의 시대 2020, 광주에게 묻다

.....

우리는 올해 전 세계에 일어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현장성과 상호교감성이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위기의 시대 2020, 광주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분야를 들여다보고 다가올 2021년도를 조망해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시선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계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2020 문화예술 평가와 전망
김지원_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당금_ 푸른연극마을 대표
- 청년문화기획의 영역과 한계, 그리고 도약
김성환_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 청년문화가 살아남는 법
윤현석_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 광주는 지금 관광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조현희_ 광주도시여행청 대표

2020 문화예술 평가와 전망

김지원_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코로나 위기와 창작활동의 위축

2020년 전 세계의 주요 이슈는 단연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익숙했던 일상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종교집회와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쇼핑과 여가활동은 온라인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최소한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일상으로 복귀는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직접적 대면과 집합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행사의 취소, 예술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며 창작활동은 심대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프리랜서, 계약직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은 소득감소를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은 드라이브인 버스킹, 온라인 공연, 가상공간 전시,

웹 기반 축제 등과 같이 물리적 제한에 저항하는 방식의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위로와 희망, 새로운 성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양혜원, 2020).

코로나19 대응정책 분석과 평가

코로나19 국면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와 광주시의 정책대응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현황조사, 다중이용시설에 소독과 방역용품 지원, 문화 공간 휴관 및 폐쇄, 대응지침 안내 등 기존 정책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로나 장기화 조짐이 있는 시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공연예술계 긴급지원책이 실시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3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고용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관광 분야를

포함해 3,399억 원을 편성하는 좀 더 적극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광주시의 긴급 지원책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의 체감도 낮은 것 같습니다. 정책은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한데 선례가 없는 위기상황에서 실행기관은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긴급 지원의 취지로 설계된 신규 사업을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낭패를 겪기도 했습니다.¹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단계별 대응 현황〉

단계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시도	문화재단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분야 코로나 전담 창구 운영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자 (마감) 창작준비금 지원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방역 지침 마련 공공문화시설 방역체계 마련 사업비 조기 집행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및 상담창구 운영 예술인 피해 실태 조사 지원사업 규정 및 지원적용 완화 사업비 조기집행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계 직접 지원 공연예술분야 전담 창구 운영 공연예술분야 창작 지원 공연예술분야 소극장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 소극장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시설 방역지원 코로나 대응 추정편성 온라인 비대면 예술활동 예산,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피해 긴급 지원 자자체 추경 및 자체재원 조달 맞춤형 사업 편성 온라인 비대면 공연활성화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예술프로젝트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지원 공연예술분야 인력 파견 창작준비금 확대 문화예술교육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긴급 지원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창작 준비 등 과정지원 확대 온라인 관련사업 통합 플랫폼 설계 및 논의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2021년 지원사업 예산 및 계획마련

1 코로나 19 긴급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 여러 문제점과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은 긴급지원 성격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예산이 지원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일반 공모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지침을 따르게 되어있어 속도감 있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2020년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응조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중요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붕괴 직전에 있는 예술생태계를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2021년에도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일정정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들

올해 문화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복과 전환 그리고 문화정책의 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현재의 지원방식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인식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나 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긴급 구호, 지원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재해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감안하여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과 지원영역의 다각화(연구, 기록, 기획, 과정지원)를 위해 창작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유지 단계별 플랜 수립, 예술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지침 완화 등을 검토하여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복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영역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공영방송을 활용해서 콘텐츠의 유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유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당금_ 푸른연극마을 대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또는 “있음이나 없음이나 이것이 문제로다”

연극 햄릿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 문장일거다. 햄릿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인생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혼란과 함께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이라고 할 정도 우리는 현재 드라마틱한, 극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점점 더 혼자여야 한다고 관계의 문을 닫게 한다. 그리하여 분리된 사람들은 고독하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는 중얼거린다. 이것이 사는 것이냐?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죽을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달라! 인류는 코로나로부터 극적인 탈출을 감행하고 코로나로 인해 극적인 순간에 고립되어진 사회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회복 되어질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만일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이득과 거래가 단지 먹고 자는 것에만 있다면? 짐승, 그 이상일 수 없다(햄릿의 독백 중)’ 하며 당장 그리스 아

크로폴리스로 달려가 수많은 인파들과 어울려 야외 원형극장에서 드라마를 감상하고 열린 토론을 하며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성찰 했을 텐데... 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신전을 세우고, 그 주변은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는데 이곳에 위치한 야외극장은 시민들의 행동양식을 토론하고 성찰하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공연되는 연극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주인공이 다른 인물들과 사회적 관계를 하는 무대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면서 인간의 행동양식을 토론하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극 드라마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성찰하였을까? 극단성과 집중성 때문이다. 반전이라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비극이며 극단적이다. 예술의 비극성은 인간을 정화한다.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그동안 아무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가 소멸하고 부재한 감정들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내 인생의 드라마를 반전시킬 때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로 숨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깟 예술이, 연극이 밥 먹여 주

냐고 한다. 물론 연극이, 그림이, 노래가, 춤이, 문학이 밥은 아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먹음직스럽게 한 상 가득 잘 그려놓은 화가의 밥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고흐의 〈아들의 침대〉가 전시된 갤러리 또한 피곤한 우리 삶을 넓게 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최고급 침대 대신 최상의 정신적 휴식을 취하게 한다. 모네의 수련, 모나리자의 미소야말로 영혼의 밥상이지 않은가? 예술의 쓰임새인 것이다. 그림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연극을 보면 영혼이 충만해진다. 삶의 의욕이 생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유하게 한다. ‘큰 집에 살아야지, 쌀밥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랑 먹을 것인가?’로 발상 전환이 된다. 예술은 현재의 삶을 망치로 내려친 듯 감각하게 한다. 머리와 얼굴에 꿀과 금박을 뒤집어쓰고 한쪽 발에는 펠트를 신고 다른 쪽 발에는 강철 밑창을 댄 구두를 신은 채 가만히 누워있는 토끼를 품에 안고 앉아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1965〉 퍼포먼스는 세 시간동안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과 예술에 대해 설명하는 조각가 요셉 보이스가 예술이 밥 먹여 주냐 라는 사람들보다 죽은 토끼에게 예술을 설명하는 행위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은 토끼가 사람보다 낫다고? 예술을 현실과 분리하거나 실용적 쓰임새의 필요성만 부각하는 인간을 향한 패러독스였던 것이다. 페스트가 유행했던 시대에도 공연을 했고, 전쟁 중에도 공연장은 피폐해진 마음을 쓰다듬고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했다. 반공호에 간혀 있어도 피아노 선율에 눈물을 흘리고 가수의 노래에 생의 환희를 기억하고 배우의 몸짓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위험한 시대인 지금 생의 환희를 느끼게 해 줄 예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밥을 원하고 누울 수 있는 침대를 요구하니 모든 국공립 공연장을 닫고, 미술관을 닫고, 갤러리가 닫히고, 연극하는 소극장, 노래하는 소극장을 닫으라고 했

다 위험하다고! 예술의 의지가 필요한 시대,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사회적 관계는 불통이고 죽음으로 차단고 있다. 예술가는 불사조가 아니다. 살고 싶은 인간일 뿐이다. 역병의 시대에 몸 사리며 살아남고 싶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예술과 예술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살기 위해 죽어야 하다니! 행정조치 등으로 극장 문을 닫으라고 할 때도 국공립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살아남겠지만,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미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을 찾거나 파트타임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수면 아래 발차기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간간히 코로나 예술지원 등이 단기적, 임시방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장기적 예술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민간단체와 현장예술가들이 참여하게 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예술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체보다 더 왕성한 예술 활동의 터전인 민간공연장, 갤러리 등의 지역예술 생태계가 지속되도록 인건비, 운영비등의 예산을 책정하고 예술현장을 육성할 수 있다. 광주시립예술단체와의 협업을 도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광주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문화와 예술가들이 협업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월세에 임대 에 허덕이는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내 창작공간을 확보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함께 공연보기 등등으로 예술계에 활력을 보태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드라마 코로나는 비극인 건 틀림없다. 하지만 비극에는 반전이 있기 마련이다. 현실의 리얼리티로 세상과 대적하기엔 답답하겠지만 유쾌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선~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예술과 함께 동행하기를 제안한다. ♪

청년문화기획의 영역과 한계, 그리고 도약

김성환_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2013년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특별상까지 받아 광주지역 문화허브로 조망 받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당연히 취업하게 될 줄 알고 거처를 대전에서 광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던 중 운 좋게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에 입사하게 되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를 담당 넘어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근무하던 중 안타까운 '세월오월'사건을 계기로 대표이사의 사퇴와 인원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아닌 피해를 맞아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당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팀장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역할을 시작으로 '광주세계김치축제', '레드페스타', '1930양림살롱',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아트피크닉' 등에서의 운영진 스태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광주광

역시 제야의 종 타종식', '사직단오제', '2019세계청년 축제'에서 감독직을 맡아 너무나 감사한 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는 주변 선배님들이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저도 광주지역 문화기획 분야에 한몫을 하고 싶어 후배양성을 하고자 '청년파티기획그룹 화이트랩'이란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기수당 5~10명씩 현재 4기까지 교육을 진행하며 광주지역 문화기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랐습니다.

허나 현실의 벽은 상상 그 이상으로 높았고, 정부 지원사업만으로 목을 축이기에는 청년들의 갈증은 너무 메말라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은 취업고민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청년은 자금고민, 결혼고민,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은 방향성 설정에 대한 고민들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문화기획'이라는 달콤한 솜사탕은 불안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위기의 시대에 무조건 온라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론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살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한 선배님들께 받은 조언들이 지금의 위험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20년... 청년은 힘듭니다. 문화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문화기획은 더욱 힘듭니다.

얼마 전 한 행사의 대행을 맡게 되어 운영인력 12인을 모집했습니다.

행사 하루 전,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인원이 다급하게 '저번 주 알바 했던 행사에서 확진자 동선과 겹쳐 오늘 검사를 받았고, 내일 결과 나올 때 까지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정말 믿었던 인원이라 경황이 없었고, 그의 안부가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솔직히 내심 '그 임무는 누가해야하지?', '대체인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앞서있었습니다.

행사 후 확인해보니 '음성판결이 나왔고, 인원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인력과 관객인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문화행사 종사자는 위기의 시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에 비해 떨어지는 것뿐더러, 아예 '제로'인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완전 극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야 치료되고, 문화기획에 힘

든 상황에는 문화기획 선배님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문화기획으로 똘똘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몇 분 되진 않으십니다.

물론 다른 직업과 병행하시는 선배,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선배도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더 큰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면 문화기획 선배님들은 단 한 분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청년문화기획자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배울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면 그 어떤 선배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위기의 시대에 무조건 온라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론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봐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살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한 선배님들께 받은 조언들이 지금의 위험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실 선배님들이시라면 '과거에 내가 힘들 때 날 붙잡아준 선배가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

청년문화가 살아남는 법

윤현석_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지역에서 청년 문화인으로 또는 예술가로서 산다는 것은 불안감을 끊임없이 견디는 일이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만류, 사람들의 은근한 무시와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청년문화인은 제대로 된 직업 분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이란 사회적 노동의 주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청년 문화인들은 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로 더욱 큰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매번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은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문화인들은 '인문적으로 상상하고, 예술적으로 창조하라'라는 문장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상상과 방식으로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낸다. 문화기획자의 가치를 승고히 생각하며, 좋은 기획으로 세상을 또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애써 누구보다 뜨겁게 달구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고안하고 창조하며 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이 도시는 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았던가.

청년문화인들의 삶의 문제는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아젠다로써 정립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거, 인간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며 어느덧 N포세대 라는 딱지가 붙었고, 그 딱지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져버렸다. 그러다보니 우리 청년들에게 '지역' 과 '문화'에 대한 고민과 활동은 낭만적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거리두기로 문화인으로서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그중에서도 문화계는 너무 큰 직격탄을 맞은 듯하다. 대중공연과, 창작전시, 축제 등은 취소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창작자, 경영인, 종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생계의 어려움과 미래의 막막함으로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행적을 다시 둘러보아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정통적인 소

오프라인의 제한점과 변수에서 벗어난 문화예술이 콘텐츠로서 재탄생되며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 접근성이 낮아지고 다양함을 무기화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영역이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비창구였던 장소, 공간에 제약이 생긴 상황이다. 그러자 기술의 힘 콘텐츠의 영향력을 빌려 되레 제약이 혁신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 콘텐츠는 정해진 소비규모, 지리적 환경 등의 한계가 있었다. 오프라인의 제한점과 변수에서 벗어난 문화예술이 콘텐츠로서 재탄생되며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 접근성이 낮아지고 다양함을 무기화 하고 있다. 젊은 창작자와 기획자들이 이미지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의 성공과 자신의 개성을 SNS로 표출하는 것에 능숙하여 이제는 많은 젊은 소비자가 예술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영역이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창작자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가지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 기존의 헤비유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유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인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정부지원, 공공기관사업 참여 등으로 점철되어 있던 문화기획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자생력을 고민

하고 소비와 창작자가 직접 교류하여 만나게 되고, 문화와 예술이 대중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창작자 한명이 크레이터로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고, 소비되는 미래를 그려본다면 청년문화인들의 앞으로의 고민과 방향에 있어서 관성화 되어 있던 기존의 문화계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문화인이 성장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문화 창작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문화공동체를 만들고, 퍼실리테이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방식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이 필요하다.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방식을 19세기 교양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의 사고로서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왔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청년문화인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스스로 쌓아올리는 문화적 모습을 인정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광주는 지금 관광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조현희_광주도시여행청 대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광주 관광에 대해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코로나로 인해 관광이 뜸한 지금이야말로 관광을 준비할 적기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껏 억눌렸던 관광에 대한 욕구가 봇물 터지듯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 관광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하고, 그것을 가지고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설사를 양성하는 단순 작업만 해온 것이다. 그 결과 광주는 전국에서 관광 꼴찌에서 두 번째, 재미없는 도시 3위에 올랐다.

이제는 단순 투어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관광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최근에 필자는 정율성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광주전남의 정율성 유적지를 둘러보게 되었다. 이곳에서 광주관광의 현실을 목격했다. 전남은 화순에서 잠깐 살았던 정율성 선생 스토리를 실마리로 정율성이 살았

던 옛집을 복원하고 정율성 동상, 정율성 벽화, 정율성 교실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율성 선생이 광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광주의 정율성 유적지는 관광지로써 기능이 미비하고 볼거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 필자가 직접 정율성 관광 포토존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정율성 생가와 송일학교 옛터에 정율성의 조형물과 벽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해당 장소의 건물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2015년부터 필자는 도심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율성 음악 산책길 투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율성 선생에 대한 스토리는 풍부하지만 정작 정율성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현장에 가면 관광콘텐츠가 부족해서 투어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정율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포토존 기능이 있는 볼거리를 조성해놓으면 관광객이 생생하게

정율성의 스토리를 체험하지 않을까 해서 시도한 일인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로, 그리고 약간은 공익적 마인드 부족으로 결국 이 일은 무산되고 말았다. 다행히 내년엔 광주 시에서 정율성 불로동 생가를 매입하여 정율성 역사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니 정율성의 관광 콘텐츠는 조금이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광볼거리 조성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에 설득과 협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에서 볼거리는 스토리텔링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아시아문화전당에 미디어아트 야외전시가 열렸다. 이 전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시가 진행되며 상설 전시가 가능하도록 미디어아트 조명 시설까지 영구 설치하였다. 필자는 이 전시가 꽤 근사하여 전일빌딩 옥상과 뷰폴리 등 기존 야경뷰포인트와 연결하여 사진작가와 함께 떠나는 도심나이트투어 ‘야(夜)한광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폭발적이다. 전당이 오랜만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중적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으로 전당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일빌딩245가 개관하면서 5·18콘텐츠를 관람하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여기에 5·18사적지 26호 옛 국군광주병원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설 계획이 잡혀 있으며, 5·18사적지 11호 구 적십자병원도 최근에 시에서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엇그제는 5·18기념재단 주최로 5·18사적지의 다크 투어리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4차례의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관광협회를 주축으로 뚜껑 없는 오픈형 시티버스가 광주 시내를 돌아다닐 예정이며, 올 연말에는 충장로 우체국 뒤편에 광주출신 K-POP스타를 테마로 한 K-POP스타의거리가 개장할 예정이다. 스타의 거리는 전 세계 K-POP팬들을 광주에 유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아트 야외전시

치하고자 광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로, 이곳에 가면 BTS멤버 제이홉의 ‘HOPE WORLD’ 조형물과 유노윤호, 몬스타엑스 등 스타랜드프린팅, K-POP스타 기념관, K-POP벽화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민간에서 목소리를 냈던 제안들이 하나둘씩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드디어 광주가 관광도시로 진입하는 것인가?!

본 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열악한 관광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꾸준히 오래 동안 하는 것이다. 축적의 힘을 믿어야 한다. 관광콘텐츠를 하나씩하나씩 축적해가다보면 어느새 광주도 글로벌 관광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광주는 도시경관은 빈약하지만 스토리가 아주 풍부한 고장이다. 스토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숭고한 행위나 특이한 행적, 관습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람들이 위대한 도시다.

이제부터라도 광주시는 광주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 구성에 힘써야한다. 투어프로그램 기획에만 그치지 말고 과감한 재원투자와 발상전환으로 스토리가 남아 있는 곳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바꿔야 한다. 광주의 이야기를 건축물과 조형물, 포토존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관광도 사람이 하는 일, 광주사람의 위대함을 이제는 관광정책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

문화인 탐구생활



장소 : 충장로 골든레빗

전라도 사투리보다 구수한 배우 지정남

- #여으네인 #여배우 #구수한 사투리 #천의얼굴 #마당극
#현장 속에서 #시대를 표현하다 #궁계 #지정남

인터뷰어 이지호
인터뷰이 지정남

큰 집회나 행사 하고 나서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마이크가 폭력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소통이 안되어블른 혼자 뭐했나 하고, 근디 마당극은 재미져. 현장에서 주고받는 시너지가 커요.

가로수가 가을빛 가득 담은 낙엽으로 도로마다 물들이는 11월의 어느 날, 김향득 사진작가의 소개로 지정남 배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금방이라도 우스운 말을 던질 것 같은 표정과 눈빛, 발걸음과 몸짓 하나에도 묻어나는 익살스러움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단번에 생각났다. 식당 사장님은 단번에 알아보고 잘 나오지 않는 반찬들을 내왔고, 손님 중 몇 분은 싸인을 받으러 왔다. “이거시 여으네인 찬스” 지정남 배우가 비밀스러운(?) 반찬들로 젓가락을 옮기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이지호(이하 이) 독자들에게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지정남(이하 지) 저는 늘 배우가 먼저고, 지정남입니다. 전라도 말을 쓰는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활동을 하다보니 방송 쪽에서도 비슷한 컨셉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 조금만 대화를 나눠봐도 정말 타고난 연예인이다 라는게 확 느껴져요.

지 궁께,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때는 잘 몰라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다가 배우를 시작했지만 그러도 잘 잡아브렀다 생각이 들죠. 어디 가서 “배우입니다” 하면 “스읍. 배우를 할 얼굴이 아닌디...” 그럼 내가 얼른 “마당극, 마당극!” 이러면 “이잉~ 이잉.” 고제사 수궁을 혀. 내가 얼굴은 크고 팔다리 짧으니까. 키 크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마당극하면 엄청 어색혀. 노력도 허벌나게 해야 웃겨. 근디 나 같은 사람들은 안 그래. 지금도 아무것도 안했어(웃긴 표정). 그냥 나와 가지고 서있어(우스꽝스러운 포즈). 요로고 가만있어도 뽕뽕 터지잖아. 잘 찾은 거지. 궁께.

이 연기는 언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지 23살부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큰 뜻을 품었죠. 그 때가 전교조 세대여가지고 좀 선

생님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뜻을 가지고 해고자 싸움을 하게 돼요. 무등양말에서 양말 만들었다니깐. 노조 만들려고 들어왔다가 해고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신명 작품을 봤죠. 그 때 배우들과 나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느꼈어요. 지금 임영웅이를 영접하는 올 엄마 심정 같아블거여.

이 배우에 어느 정도 꿈이 있으셨나봐요. 연극이 재밌다고 직접 해보겠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지 궁께요. 내 성향이 사람들한테 칭찬 받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렇게 칭찬받으면 저리 날아가브러. 마침 노동운동도 하고 있는데다가 연극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당극이었어요. 세상을 이야기 하고, 사람들이 환호까지 해주고, 나도 돋보이고! 그러면 싸움 자체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죠.

이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엄청 즐기셨나봐요.

지 그 때는 잘 몰랐는디 인자 나이를 50 앞두고 나를 쭉 돌아보니깐 내가 그랬더라고. 나는 극구 아니라고 막 점잖떨고 그랬는디 생각해보니 그랬대요. 돋보이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 배우로서 돋보이는 일에도 종류가 많은데 유독 마당극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 저는 현장이 좋아요. 그리고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SNS나 많은 매체가 생겨나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현장만의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나야 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현장에서만 전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작품에서 연기를 할 때보다 더욱 더 힘을 내지 않나 싶어요.

이 아무래도 운동권에 뜻이 있다 보니 직접 대본도 많이 쓰셨겠어요?



지 글쎄, 쓰게 되죠. 세상에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배우들한테도 쓰라 그러거든요. 마당극은 예술 영역이 커요. 그래서 뭐 세월호 이후에 개인적으로 극단 내에서 환경극이라던지, 무등산 꼬마 삼총사 이런 건데, 쓰레기 버리면 무등산이 마귀가 된다는 이야기나 세월호 꽃신, 또 예전에 예술인들, 일제 강점기 때 유일하게 문화 활동이 인정이 된 곳이 항일기에 기생 조합인 권번이었어요. 그분들이 운동도 함께 해요. 그 당시 디딤돌을 해주는 역할로써 예술로 시대의 아픔도 같이 하지. 그런 권번에 관한 이야기도 쓰고 또 예술은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에서 5월을 계속 이야기하고도 있죠.

이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꼽는다면?

지 지금 하고 있는 박조금, 행방불명자 어머니 역할이요. 현실과 5·18을 같이 묶어 낼 수 있는 인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귀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무당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머니들 이야기를 싹 다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캐릭터가 박조금 캐릭터인데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서방이 다섯이나 되고. 근디 아들만 믿고 살다가 아들이 행방불명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더 절절한 역할이죠. 이 역을 10년 째 하고 있는데 어제 공연 다르고 오늘 공연 다르고 10년 째 하다 보니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분노

에 싸나움을 부렸다면 지금은 좀 그것을 뛰어넘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게 표현이 된다는지 그래요. 결국 아들을 만나게 돼서 그 마지막에 엮힐 때 입는 옷을 입혀주는데 그 전에는 속대사가 ‘어쩌다 너는 이려고 좋은 애기가 명도 짧게 나고 이런 험한 세상에 광주에 태어나서 니 명대로 못살고 죽었냐’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널 참 몇 년 못 키워봤다만 참 애썼고 참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속대사가 바뀌었어. 궁께 인자 나도 표정이 달라져. 그 캐릭터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1인극 하듯이 대사랑이 막 20분 이러거든. 중요한 건 내가 허벌나게 돋보이잖아.

이 마당극은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이 많은데 그래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 실제로 「쌀 방랑소고」에서 국산 쌀 역할을 했는데 수입쌀, 막 칼로스 쌀이 들어왔을때며. 이 작품을 만들어서 현장을 돌아다녔어. 농민이 있는 곳 어디든. 아직도 기억이 나. 그 때는 아스팔트가 어딴어. 다 흙이고 여기저기 물웅덩이에는 물이 차박차박하고. 근디 그 때가 시한(겨울의 전남방언)이었어. 아버지들은 새벽(새벽의 전라도방언)부터 집회를 나서. 그 때부터 막걸리를 한잔씩 자시고. 우리는 한 아침 8시부터 공연을 했는디 내용이 국산 쌀이 수입쌀하고 막 권투 시합을 한디 막 디지게 맞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팍 쓰러져. 근디 딱 내가 쓰러진데가 해필이른 웅덩이 있는 쪽으로 쓰러져 부렸어. 그 추운 날 옷이 싸아악 젖어 불고 찬 기운은 올라온디 역할은 또 계속 쓰러져 있어야 돼. 근디 그때 막걸리 자신 아버지가 철철 우시면서 “내가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니가 저것들한테 맞아서 쓰러지면 나는 워찌냐!” 하고 콧물 눈물 빼시면서 우시는데 나 진짜 거기에서 펄펄 울었어. 너무 추워서 울었어. 농담이고 아버지 때문에 울었지. 근디 선배들을 봤는데 선배들이 우찌해야 될지를 모르는거야. 갑자기 극이 깨져버리니까. 근디 또 아버지

가 계속 나를 만나켜. 원래 대본은 만나면 안된다 근 디도 그냥 만나뵈어. 춤기도 허고잉. 무당이 나와갖고 막 농민들이 춤을 출 때 일어나야 하느디 아버지가 하도 만나켜본게 만나뵈어 그냥. 어찌됐건 농민이 일으켜 세운거잖아. 그때부터 선배들도 다 치워블고 다 같이 풍물매고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브렸잖여. 아버지가 슬뚜껍만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우시는데 아.. 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마당극의 장점이 현장에서 많은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교감도 있지만 또 의도치 않게 당사자들과 부딪히는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오해가 되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지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5·18 행방불명자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장소를 옮겨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신명 같은 경우는 5·18이 있고나서 82년도에 만들어진 극단이라 세월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랑 인연을 갖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하려고 하죠. 그렇다한들 당사자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충격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니깐 누구나 다 알게끔, 왜곡만 아니면 누구든 편하게 이야기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범접하기 힘든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뒤버리면 그 정신을 후대가 기념하고 승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대단한 역사이지만 편하게 좀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여기에 예술가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이 마당극이 현장성을 동반한 연기이다 보니까 녹화도 안 되고 말이죠. 몰입이 안 되서 힘들었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 세월호 참사 딱 터지고 나서가 그랬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당장 아이들은 저렇게 많이



죽어서 있는데, 그 엄마들이 저렇게 철철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냐? 가짜냐? 나는 여기 왜 서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냥저냥 했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 연기가 안되브렸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주모임도 열심히 했는데 나랑 다 동갑이야. 그 애들이 다 아휴 막 음... 정말 다 내 자식이고, 그 아이들이 다 나고. 그 때가 제일 연기가 안 났던 것 같아. 그 때 2014년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당극이라는 형식이 주로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운동권에 계시기도 해서 그런지 생각이 항상 그쪽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배우생활에서 선생님을 이끌었던 중심은 뭘까요?

지 불합리함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불공평함이 자연스럽지 않다. 요새 화두가 자연스러움인데 나다움이란 게 뭘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환경이 어려웠어요. 풍을 지릴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



을 받아야 하는데 그 때가 5·18 당시.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깐 하는 수 없이 돌아가고 결국 다음 해에 수술을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거지. 여하튼 거기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 보고 전교 1등도 해보고.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구나. 엄마는 계속 가난하고, 농민도 맨날 가난하고. 그래서 처음엔 분노로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젊었을 때는 이리다 죽지 뭐, 짊고 굶게 살지 뭐,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정말 문화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인거죠. 말랑말랑한 힘으로 좀 이야기는 꺼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사람들 만나는 것 좋아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것 좋아하고 개 중에 내가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현재 이끄는 힘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나다움을 찾아가다보면 물론 세상이 복잡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다들 좀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는데 탄력이 확 생길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좇볼 지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일은 마당극인가요?

지 마당극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일이 다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남도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어머니들의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다 꿈이 가수였고 그래

요. 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지. 똑같은 시절을 지냈는데 그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어요. 또 5월, 특히 광주에서 사는 배우로서 5월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총을 들고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신 역사가 이야기가 되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이야기, 여성이야기, 사랑이야기, 뭐 거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 등등 그걸 조금만 들여다 보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인터뷰 공식 질문인데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 일단 지금 나는 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았다? 저는 사람들, 무리, 조직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평적인 조직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연극이 됐건 사회적인 모임이 됐건 친구관계가 됐건 수평적인 조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꾸준히 찾아서 관 뚜껑 달을 때 저기 조물주가 준 거 다 맛 본 것 같으니 앵가치 언능 뚜껑 달아 주쇼 하고 이렇게 죽는 게 꿈이여.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요근래. 이것도 자꾸 바뀌대요. 그전에는 잘 노는 배우요,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오십살이 되가니까 또 배우로 살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직업이나 다른 분야에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편이긴 해요. 가진 것도 없고 궁게 선택이 빠르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관 뚜껑 언능 달요. 나 갈라요. 하는게 바람이긴 한데... 또 모르죠잉 그 때 욕심이 창창 해가지고 여기다 보석 한보따리 넣어놔 이럴랑가 ㅎㅎㅎ

맑고 깨끗한 노래 「소쇄원48영」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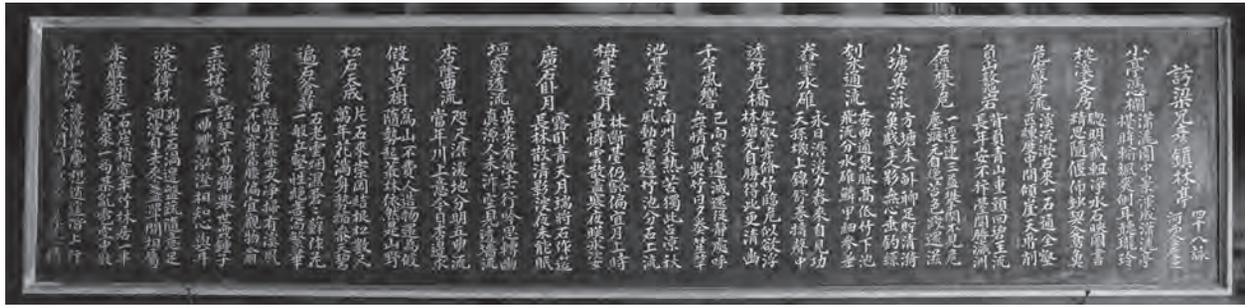
소쇄원은 조선 전기 때의 문인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지은 별서원림(別墅園林)이다. 그는 기묘명현의 한 분인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1482~1519)의 문인으로 사화로 인해 정치적 파행과 훈구파의 전횡으로 인해 스승의 도학정치가 좌절되고, 17살 나이에 화순에서 사사당한 스승의 마지막 모습에 세상과 거리두기를 결심했다. 그는 바깥세상과 담을 쌓은 채 오로지 소쇄원을 경영하면서 귀거래(歸去來)의 전통을 세운 절의적(節義的)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수 좋은 곳에서 정자를 짓고 노닐고자 하는 뜻을 품었다. 당나라 때 이덕유(李德裕)가 낙양 30리 밖에 세운 평천장(平泉莊)의 고사를 참고하여 후손들에게 소쇄원을 잘 경영해줄 것을 유언으로 부탁하였고, 그 결과 소쇄원의 원림의 원형이 오늘날까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소쇄원에는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의 「소쇄원48영」이 있어 더욱 신비롭다. 더욱이 양산보와는 사돈지간이다. 그는 당시 화순 동북에 유배와 있던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1483~1536)에게 공부하러 가는 중간에 소쇄원에 들러 교유했는데,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쇄원을 수없이 오고가는 동안의 인연이 쌓여 소쇄원의 빼어난 경치 48군데를 선정해서 「소쇄원48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소쇄원의 공간은 물론이고 정물과 경물 그리고 행위요소가 모두 망라하여 시로 표현한 작품으로 오언절구의 형식에 48개의 제목을 붙여 연작제영시 형태로 지었다.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면서 천지조화의 오묘함을 감상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함께 관조하는 계산풍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쇄원48영」 관습시적 연작제영시로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창작했을 것이다.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했던 시점을 1536년으로 잡고 늦어도 1550년경에 완성했을 것이라고 보면 약 15여 년의 시간을 두고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쇄원48영」은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의 「식영정20영」, 송순(宋純, 1492~1582)의 「면양정30영」 등 이 시기 무등산 일대의 연작제영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쇄원48영」은 각 영마다 네 글자 제목을 달고 있는데, 앞의 두 글자는 대체적으로 '장소'를 뒤의 두 글자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결합하는 양식을 갖추고 있다. 11영인 '지대납량(池臺納涼)'의 경우 앞의 '지대(池



소쇄원 제월당[소쇄원사십팔영시(詠詩)]

臺) 연못가의 언덕을 뜻하고, 뒤의 ‘납량(納涼)’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여 서늘함을 맛본다는 뜻이다. 곧 앞에는 명사, 뒤에는 동사 또는 그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많은 문인들이 주요한 소재로 삼았으며, 이는 하나의 관습적 연작제영시의 양식으로 굳어진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소쇄원48영」을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 이중 구체적인 행위 요소가 강한 몇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제6영 작은 못에 물고기들 노닐다 小塘魚泳
 方塘未一畝 네모진 연못 한 이랑도 채 안되는데
 聊足貯清漪 부족하나마 맑은 물 모으기에는
 괜찮다네
 魚戲主人影 물고기는 주인의 그림자에
 이리저리 노니는데
 無心垂釣絲 낚싯대 드리울 마음 일지 않는다네

제14영 시냇물이 담장 밑구멍을 뚫고 흐르다
 垣竅透流
 步步看波去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따라 오르는데
 行吟思轉幽 시 한 수 읊으니 생각은
 도리어 그윽하다네

眞源人未泚 참된 근원 찾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
 空見透牆流 부질없이 물 흐르는
 담장 밑을 본다네

제20영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 타다 玉湫橫琴
 瑤琴不易彈 거문고를 쉽게 타지 않는 건
 舉世無鍾子 세상 두루 찾아보아도
 종자기가 없어서라
 一曲響泓澄 맑고 깊은 물에
 한 곡조 울리고 나면
 相知心與耳 마음과 귀만은 서로 안다네

제23영 대숲 긴 섬돌을 거닐다 脩階散步
 澹蕩出塵想 티끌 세상에서 나온
 생각이 맑고도 넓어
 逍遙階上行 섬돌 위를 걸림없이
 자유롭게 거닌다네
 吟成閒簡意 시 읊어 한가로이 뜻 이루고
 吟了亦忘情 시 읊고 나면 사사로운 정 또한
 잊는다네

제47영 애양단에서 겨울 한낮을 맞이하다
 陽壇冬午
 壇前溪尚凍 담장 앞 시냇물 아직 얼어 있고
 壇上雪全消 담장 위에 내린 눈은 모두 녹았네

枕臂迎陽景 따뜻한 별 가까이 하여
 팔베고 누우니
 鷄聲到午橋 닭울음소리가 점심 때임을
 알리는구려

늦가을에 소쇄원(瀟灑園)에 오른다. 코로나19로 인해 본의 아니게 두문불출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을 구경은 해야겠다 싶어 오랜만에 찾았다. 대숲을 지나 소쇄원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봉대에 잠시 앉아 바로 앞 오동나무를 바라본다. 오동나무에서 서식한다는 봉황은 어디에 있을까. 봉황이 오지 않는 세상은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데 과연 그럴까. 요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는 늘 위기라고 호들갑이다. 웬지 언젠는 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애양단(愛陽壇) 담장에 비치는 햇살

이 따사롭다. 바로 앞 개울을 건너는 외나무다리 아래에 물이 졸졸 흐른다. 다리에 쭈그려 앉아 오곡문(五曲門) 옆으로 난 개울을 바라본다. 속세와 단절키 위해 담장을 만들었지만 차마 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대신 두 군데에 돌을 괴어 기둥 만들어서 담장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 부분에서 숨어 살고자 했던 양산보의 생각이 보인다. 매대(梅臺) 옆 좁다란 길을 걸으며 제월당(霽月堂)을 옆 눈으로 바라본다. 처마 끝 곡선이 하늘로 솟아오를 것처럼 가볍다. 마루에 걸터앉아 기둥에 몸을 기대로 발을 위아래로 젖는다. 광풍각(光風閣) 뒤 산수유나무 잎 속에 빨간색이 보일 듯 말 듯 감춰져 있다. 봄날 샛노란 꽃을 피우고 가을날 빨간 열매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광풍각 아래 계곡이 조용하다. 가을 가뭄이 심했는지 물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소쇄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내 마음은 어느새 맑고 깨끗해졌다. ♪



소쇄원 광풍각

전남·일신방직 공장 터를 바라보며

박홍근_ 포유건축 대표



장소를 이르는 말인 터, 여기에 새겨진 무늬를 터무나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은 삶의 근본을 본인들이 사는 터에서 찾았다. 터에는 그곳만의 고유한 무늬가 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일정 세월이 지나 역사적 기억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의 무늬가 되기도 한다.

인간이 그린 무늬는 인문(人文)이라고 한다. 사람의 이야기, 생각, 흔적, 추억, 기억 등등 인간의 삶이 그린 무늬를 말한다. 터에는 고유한 터무늬와 인간이 그린 무늬가 함께 한다. 이는 그 장소만의 정체성이고 가치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터에 대한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직공장은 1935년에 지어진 근대 산업 유산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다. 1935년 종연방직 전남공장으로서 시작하여 1948년 전남방직공사로 바뀌었고, 1951년에 민간에 매각되었다. 이후 1952년 전남방직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1961년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분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공장의 설립 배경, 과정, 운영, 사람 등등에 관련된 수많은 스토리가 있다.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광주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히스토

리며, 자산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이곳의 극히 일부를 존치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하여 협의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터무늬는 거의 사라지고 인문은 찾아볼 수 없는 계획안이다. 그런데 대안 제시보다는 토지주가 제시한 것을 토대로 검토를 하는 것 같다. 광주시는 종합적 도시 공간 계획 전략이 있는 건지, 도시 철학인 '인본'을 어떻게 구현하려는 것인지 현 황상에서는 읽을 수 없다.

첫째, 광주시는 그간에 했던 도시 공간 계획을 다시 봐야 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5대 문화권' 계획은 이 지역의 근대 산업 유산을 이용한 '시민예술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 지역으로, 주변과 연계하여 근대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 관광거점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기능 도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이것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광주시의 도시 공간 구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완전 다른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안을 테이블에 올

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캐비닛 속에 있는 공간 전략들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

둘째, 터에 대한 기본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8 근대 건축물 기록화 사업-구 종연방직 전남공장'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인문 자료 조사와 1930년대 지어진 3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실측 기록화 작업을 하였다. 화력발전소, 보일러실, 고가 수조 건물이 다. 이 터에서 이곳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체 공장 부지에 대한 물리적, 인문적 조사를 통해 광주 도시 역사에서 근대 산업 유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활용 방안을 협상해야 한다. 사업주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셋째,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기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공장 터를 가로질러 8차선 계획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 터의 주요 자산들이 훼손된다. 길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고, 직선과 십자(+)형 네거리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흘러도 된다. 터에 대한 물리적, 인문적 조사를 바탕으로 근대 산업 유산으로 보존·활용할 부분을 최대한 남겨두어야 한다. 그 다음 혹시 개발할 부분을 정해야 한다. 이때는 제반 법규나 규정-건폐율, 용적율, 이격 거리, 용도 제한, 층수 제한, 상가 비율 등-에 유연할 필요도 있다. 광주를 위한 귀한 자산을 얻으려면 민관이 상생해야 한다. 특별함을 얻고자 한다면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광주에서 공장 터를 매입해 도시 공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광주는 다수의 근대 건축 유산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졌고, 보존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매우 빈약하다. 다행히 1960년대 지어진 '전일빌딩'과 1970년대에 만들어진 '광주시민회관'이 우여곡절 끝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의 문화 자산이 되었다.

전일빌딩은 개인소유 건물이었으나 운영문제로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광주도시공사가 매입을 하면서



전남방직·일신방직 전경

공공의 건물이 되었다. 원래 목적은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거쳐 원형유지가 되면서 오늘의 '전일빌딩245'가 되었다. 그 시작 즉, 경매를 받도록 광주도시공사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당시 시장이었다고 한다.

광주시민회관은 철거 공사 중에 중지되었다. 그때 지역건축계가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하고, 언론에 기고를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알리면서 철거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시장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많은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쳐 '광주시민회관 포레스트 971'로 태어났다.

이 두 건물이 여기까지 이르는 데, 그 결정적 시작점은 당시 행정 책임자인 시장의 결단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전남·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행정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이 결정의 방향과 운명도 현 시장이 어떤 철학으로 도시를 바라보는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최근에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의 첫 줄은 '인본의 정신으로 문화를 밝혀 온 자랑스러운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철학과 실천 의지를 보고 싶다. ㄴ

휴먼 미디어시티 광주 (Human Media City, Gwangju)를 꿈꾸다



진시영_ 창의벨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예술감독

광주광역시시는 과거의 개발 중심적 도시의 상향 발전식 정책에서 눈을 돌려 창의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정향으로 삼고 새로운 향해의 도정에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직시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추진력을 받아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량과 창의성을 키워 점차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구체적 생활 영역 속에 미디어아트의 장소적 공간을 활용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심미안과 예술가의 창·제작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 세우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 CGI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립미술관, 미디어 아카이브, 국제적 행사인 비엔날레, 그리고 디자인비엔날레에 이르기까지 이미 광주는 일상 속에 문화가 곳곳이 스며들어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광주광역시시는 정책포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부의장 도시로서의 활동 등 다양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에 대해 유네스코 네트워크 측은 광주가 전 세계의 창의도시들을 위해 큰 도움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광주는 현재를 넘어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창의벨트 조성사업은 단순히 예술가들의 미디어아트를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 광주의 모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 광주를 새로운 시대 위에 올려놓는 동시에 세계로 확장시켜 당당히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목표이다. 광주만이 갖는 사회, 역사, 예술, 산업적으로 고유한 자산들을 미디어아트와 조화롭게 결합하는, 다른 창의도시와는 명시적으로 차별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빛, 광주 의향 정신, 예향의 전통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휴먼 미디어시티 광주(Human Media City, Gwangju)’가 바로 광주의 비전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일까? 물론 보여줄 수는 있다. 그것은 그저 주제에 따라 다만 한 곳에 단순히 섞어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집합적 배치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리적 장소성을 광주 전역에 대한 새로운 '지형 그리기'로의 인식적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 전역에서 본 창의벨트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먼저 설정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구체적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민주와 인권), AMT센터 및 금남로 일원(예술과 기술), 광주역 광장(신산업과 혁신), 광주광역시 청사 및 광장(참여와 소통), 광주광역시립미술관 및 창작스튜디오(예술과 기술), 국립 광주과학관(기술과 혁신), 광주공항 및 광주 송정역(광주의 관문) 등 총 7개의 주제와 권역을 정했다. 우선 민주와 인권, 예술과 기술(AMT센터 및 금남로 일원), 신산업과 혁신, 참여와 소통 지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영역은 향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가 이제 출발점에서 있다. 7개 권역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제1권역(민주와 인권)과 제2권역(예술과 기술)을 필두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최후까지 저항했던,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장소만이 갖는 고유한 미학적 특성으로 예술 표현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아시아문화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하늘공원 등 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 창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에 확대된 의미와 가치를 더욱 부여하고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즐거움을 창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지 역할을 부각시킬 계획



이다.

이 밖에도 무엇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계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속 및 확장을 통한 문화예술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이 사회문화 전반에 창의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은 민주·인권 그리고 문화의 상징적 장소로, 그 근본적인 가치와 정신의 알레고리를 잘 풀어내 해당 콘텐츠에 차곡차곡 담아내는 것이 창의벨트 예술 감독 사업계획의 핵심사항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창의벨트 예술 감독이 자신의 역량과 예술적 안목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원활하게 실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타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업하고 배려해야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시대의 독서모임, 한나 아렌트를 읽는 시간

이은경_ 검은책방흰책방 대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 거의 10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2020년은 작은 동네책방들이 버티기에 힘겨운 해였다. 특히 우리 책방은 학교 인근의 책방이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사람 보기가 힘들었던 시간들이라고 할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낭독회나 저자와의 만남은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서모임이 가능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셈이다. 우리 동네 작은 책방들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온기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다면 거의 살아남기가 힘들고 사실 동네책방의 정체성은 그런 얼굴을 보는 만남이기 때문이다. 책과도 얼굴을 보는 만남이고 사람과도 얼굴을 보는 만남이 동네책방에서는 이루어진다.

전자책이 책의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책을 직접 만지며 책장을 넘기는 아날로그적인 책과의 만남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책이나 여러 상품을 사는 재미와 편리함이 있지만 직접 시장이나 가게에 가서 상품을 사는 재미와 느낌이 있다. 그것은 걸어가는 재미이기도 하고 골목골목의 다른 풍경을 보고 느끼는 감각의 만족감이기도 하

다. 사람이 눈, 코, 입, 손, 발이 있으므로 이것들과 함께 감각을 누리는 것은 삶을 더 생동감 있게 풍성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골목 상권들이 다양한 차별성을 가지고 자기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감각을 더 풍부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일이다.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잃어 즉각적인 것을 바라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우울에, 획일성에, 조급함에, 눈앞의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아무리 느낌의 미학을 이야기해도 느낌을 즐길 삶의 공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들, 우리를 잠시 정지의 시간, 되돌아보기의 시간으로 이끄는 책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소중하다. 더불어 책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까지 있다면 더욱 그러한 되돌아보기가 깊어질 것이다.

우리 책방에서 1년 넘게 진행해온 한나 아렌트 읽기 독서 모임도 우리를, 삶을, 세계를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다.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조금 집중력과 토론이 대면만큼

잘되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화면으로 보는 시간도 재미있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자유로운 난상 토론과 농담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어떤 사상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철학 체계를 이론으로만 보는 작업이 아니라 세계를, 인간을 공부하는 작업이다. 특히 한나 아렌트의 사상은 우리 삶을, 세계를 ‘되돌아보기’ 하는 작업 그 자체였다. 정말 이런 사상가를 대학교도 아닌 동네책방에서 몇몇 회원 덕분에(전공자) 시민들과 제대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1년 넘게 진행한 내용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몇 개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해 보겠다. (이 내용이 필자가 전공자가 아니라 오해와 곡해한 것이 있을 수 있음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아렌트의 말을 일단 직접 들어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심사 숙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실재는 모든 사유는 엄격한 법칙, 일반적인 확신 등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사유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건 비판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된다. 즉 사유 자체가 그토록 위험한 일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위험천만한 사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확신하느냐하면-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유가 위험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사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하겠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개념의 의미는 사유하지 않음은 악으로



가는 가장 쉽고 진부한 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아이히만’이라는 나치전범의 재판을 통해 아렌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다. 아이히만은 흔히 말하는 성격이 포악하고 본성이 사악한 악인이 아니었다.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좋은 이웃이었다. 그런 그가 히틀러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다. 명령이고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리한, 잔혹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으로 보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어갈 이유가 되는지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그 환상과 규칙들이 옳은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살하라는 옳지 않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악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평범함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순종이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치 같은 무서운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비판, 저항, 자유를 모르고 사유하지 않을 때라고.

인간에게 의미와 존엄을 가져다 줄 역사와 정치로 고쳐 사유하기. 다양성(탄생성)과 자유를 고쳐 사유하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현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아렌트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진짜 그 세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

사투리는 그저 촌스럽기 만한 말이 아니다

김효미·김진아_역서사소 공동대표

영판¹ 까시러운² 촌년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쉽사리 지지 않는 영판 까시러운 가스나들이였다. 미대 동문인 우리는 학교를 졸업 후 각자의 삶터에서 열심히 까탈을 부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늘 쳇 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나름의 안정감은 있지만 반짝거림, 활기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저 클라이언트, 직장상의 생각이 담긴 디자인이 아닌 우리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작은 일거리들이었지만 우리끼리 재밌게 깔깔거리며 일할 수 있음이 그저 좋았다.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보니 어느덧 사무실이 생기고, 직원이 하나 둘 늘어나고, 즐겁고 활기찬 사람들이 모여 반짝반짝 빛나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 바비샤인(Bobbishine : Bobbish+shine)을 창업하고 우리만의 디자인을 했다. 광주 1번이 되겠다는 목표와 여느 디자인회사와는 다른 색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온지 어느새 9년이 되었다.

1 영판 : [부사] '아주'의 방언.

2 까시러운 : 까시롭다 [형용사] '까다롭다'의 방언.

하지만 이마저도 온전한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 클라이언트의 구미에 맞는 디자인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오랜 고민과 회의 끝에 '역서사소'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게 되었다.

영판 까시러운 촌년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나고 자란 지역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했다. 그러던 중 '사투리, 우리 지역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지역 말에 담긴 속뜻의 정과 아름다움을 한번 알려 보자라는 마음이 커졌다. 까시러운 촌년 두 여자가 다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싸목싸목³ 맨든 우리의 것

"여기서 사세요."를 사투리로 표현한 말이 '역서(여기서)사소(사세요)'이다. 우리는 역서사소라는 네 글자에 한자 음 뜻을 붙여 또 다른 의미가 있도록 브랜드 명을 만들었다. 해 반짝 뜰 역(陽), 서로 서(胥), 힘

3 싸목싸목 : [부사] '천천히(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의 방언.



쓸 사(事), 웃을 소(笑). “이는 해 반짝 뜰 날 우리 함께 모여 힘써 웃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투리의 정감 있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함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웃게 되는 것이 우리 브랜드의 모토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사투리 또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 언어문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그중 우리나라의 제주도 말 역시 사라지고 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라고 하지만, 표준어는 어느 한 지역에서 오래도록 사용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다면 그 언어가 그 ‘지역의 표준어’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세월이 지나면서도 늘 변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켰던 요소들 중 하나, 그 지역의 역사를 써내려오고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

지역의 언어는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곧 우리 브랜드의 목표이다.

단순하게 재밌는 말, 사투리를 알리는 일이 아닌 사투리의 숨은 매력과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에 집중하고 지역 말에 대한 인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했다.

지금까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의 언어로 사랑과 고백하는 마음이 담긴 고백엽서와 매달 절묘하게 들어맞아 공감되는 지역 말로 디자인된 ‘사투리달력’, 200여개의 사투리로 구성되어 작은 사투리 사전 같은 ‘사투리일력’, ‘사투리 용돈봉투’, ‘사투리노트, 스티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다양한 우리의 언어로 디자인 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사목사목 만들어 선보일 예정이다. ㄴ

거리두기 형 문화생활의 새로운 방향, '2020 양림골목 비엔날레'



한희원_한희원미술관 관장

양림동에 처음 이사 오던 때가 초등학교 삼학년이었다. 남광주역에서 효천역으로 이어지는 천변로에 집을 마련했다. 철로변 건너편 방림동에는 낮은 집들이 웅기종이 모여 있었고 그 너머에는 들녘이 끝없이 이어졌다. 가끔씩 바람부는 날이면 뚝방이 있는 들길을 거닐었다. 지금은 들녘은 없어지고 아파트가 즐비하다. 철길 옆 작은 숲 언덕에는 실연당한 남자가 자살했다고 하여 오르기가 무서웠다. 하교 후에는 철로 위를 걷기도 하고 못을 올려놓아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진 못을 가지고 놀았다.

얼마 후 언덕 위 양림교회(기독교장로회)아래로 이

사를 왔다. 교회에는 아름드리나무가 교회마당에 서 있었고, 언덕에는 미루나무, 포플러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회마당과 언덕은 어린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언덕에서 보면 먼 곳에서 무등산이 어머니처럼 감싸주었다. 건너편 양림산에는 은빛 머리칼을 한 이국소녀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들이 갈 수 없는 이상향이었다. 몇몇의 친구들이 용감하게 그곳을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김현승 시인이 양림교회 마당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COVID-19의 확산으로 침체되어가는 양림마을과 광주시민들에게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이다. 대면형 페스티벌이 아닌 '거리두기 형 문화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 있는 아름답드리나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고 시인이 오랫동안 양림동에 살면서 시작활동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아래 우리 건너편 골목길 끝머리에는 소설가 문순태 선생이 살았다. 문순태 선생 옆집이 당시에 폭발적인 시청률을 자랑한 <첫사랑>, <젊은이의 양지>를 썼던 TV 드라마 작가 조소혜 집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철길 건너편에는 「봄비」를 쓴 서정시인 이수복과 소설가 황석영 씨가 살았다. 학강초 옆에는 음악가 정율성, 양림 오거리 근처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간 음악가 정추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 90이 된 정추 선생을 모시고 양림을 거닌 적이 있었는데 수채화가 배동신이 유년시절 양림동에 광대패들이 오면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나의 대학시절 스승이셨던 황영성 교수님이 지금 팽귄마을 입구 이층집에 사셨다. 나는 종종 교수님 집에 가서 이층의 작은 아틀리에에 있는 작품들을 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의 작은 마을 양림동은 '예술의 마을'이라는 생각이 든다. 뛰어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정신을 키운 곳이고,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낸 곳이다. 그 전통을 이어받았는지 현재에도 많은 화가들이 양림동에서 작업하고 그들의 미술관이 골목 곳곳에 들어서있다.

이강하미술관, 양림미술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박구환갤러리, 윤희매문화관, 한희원미술관이 들어서있고, 11월 중에는 미디어아트 이이남미술관이 개막을 서두르고 있다. 김영태, 신수정, 정운학, 최순임, 한부철, 황인호 작가의 작업실도 양림의 골목길 곳곳

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예술가들의 정신을 한곳에 아울러 기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문화기획자 이한호 대표의 '10년 후 그라운드'가 옛 은성유치원 건물에 입주하여 내형이나 외형으로 양림동은 예술의 정신이 줄기차게 이어져가고 있다.

2020년에는 인류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맞이했다.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여행이 제한되고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사회의 모든 기능과 동력이 곳곳에서 멈추고 사람들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있다. 양림동도 직격탄을 맞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길이 쓸렁하다. 광주의 공연장과 미술관도 문을 닫았다. 시민들은 일을 잃어 버린 채 공허감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조용하지만 예술로 위로를 전해주는 마을 미술전시회 '2020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열기로 했다. 12월 31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하는 Un-tact Season으로 진행하며, 2021년 2월에는 Con-tact Season으로 진행한다. 2020년 9월 25일에는 큐레이터 조인호를 초대하여 오프닝 토크를 하였고 피가니니 음악콩클 입상자인 세계적인 바이올린니스트 양인모의 골목콘서트로 막을 올렸다.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순수한 민간인의 역량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작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Un-tact Season 기간 중에는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주제전시-영업中'은 양림동에 있는 카페와 식당 등

2020 양림골목 비엔날레

Un-tact Season
2020.
09.25-12.31

Con-tact Season
2021. 2월

광주 양림동 미술관 거리 일원

양림골목비엔날레는 COVID-19의 확산으로 침체되어있는 양림동 상권에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로, 대면형 페스티벌이 아닌 '거리두기 형 문화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최처는-양림동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카페, 식당 등에 공유 예술인들의 작품과 소규모로 전시하여 양림동 19를 곳곳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기획전시-임대展'은 양림동 내 비어있는 점포에 청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참여작가

김영태
다음
박구환
신수정
양영호
이승하
이이남
이조흠

참여미술공간

윤희매문화관
이이남스튜디오
양희매미술관 회
공작리 고철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전시프로그램

주제전시 '연업중'

오르시 | 장영지리 | 마리오세르
해바라 | 최정 148 | 장민재
에니스트 스튜디오 | 양영 | 개울빛작당

윤희매미술관 | 사진매 | 윤희매미술관 | 양영호
이이남스튜디오 | 오조흠 | 이이남 | 이조흠
19호출구로프 | 양영호 | 박구환

기획전시 '임대展'

양림동 97번지 차 반 점포 3개소

오르닝프로그램

(오르닝 화강) 양희매
'양희매 시대의 지평예술'
09.25 18시 19호출구로프

(오르닝 공간)
'비이올라나스트 양민호의
공작리서보'
09.25 18시 19호출구로프

주최:광주 양림동미술관거리일원
주최:양림동사무소
주최:양림동 '19호출구로프'
문의: 070-4239-0043



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도 예술가와 주민들이 작품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순임, 양경모, 다음, 황인호, 정운학, 박구환, 김영태, 신수정, 이승하, 이이남, 한부철, 한희원 작가가 참여한다.

‘기획전시-임대展’은 이조흠 작가가 큐레이터를 맡아 양림동 내 비어있는 점포에 청년작가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이나 관광객,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탐방 프로그램으로는 최순임 작가의 고양이 숲 갤러리, 사진작가 황인호의 가능한 창작관, 다음 작가의 윤희매문화관에서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미술공간으로는 윤희매문화관, 이이남스튜디오, 한희원미술관, 갤러리 고철, 양림 148,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 참여한다.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COVID-19의 확산으로 침체되어가는 양림마을과 광주시민들에게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이다. 대면형 페스티벌이 아닌 ‘거리두기 형 문화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VID-19가 종식될 즈음에는 마을에서 펼쳐지는 더욱 활기찬 미술축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COVID-19로 인하여 문화의 접근방식에 대한 페러다임을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규모가 큰 미술관, 공연장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시민들 주변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감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2020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작고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만나는 새로운 문화, 미술축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

코로나19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주경님_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반복으로 인해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주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본부장으로 부임한 5월부터 직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우선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맞게 ‘중단 없는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격상과 비례한 시니어층의 정서적 문제(우울증, 고독감 등) 해결을 위한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개설’이 제안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예정대로라면 3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할 9월에 맞추어 대면 수업이나 집합프로그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사업으로 채택했다. 온라인을 통해 배움과 소통, 취미 개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놀이터를 개발한 것이다. 방송 채널은 빛고을 타운의

다양한 방송 채널이라는 의미로 “톡톡 빛다방”이라 이름 붙였다.

콘텐츠 내용은 건강·활력, 취미, 여가, 교양·교육, 정보화, 자유프로그램 등 5그룹으로 나눠 주간 단위로 커리큘럼을 짰다. 그리고 현재 빛고을 타운 재직 강사 84명 중 어르신들의 인기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종목별 대표강사를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현재까지 라인댄스, 스마트 폰, 시니어요가, 하모니카, 다이어트댄스, 자서전쓰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교육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영상제작 후 방송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빛고을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난 11년 동안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통해 컴퓨터에 익숙하시고 스마트 폰 활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에 접근하는 방법도 빠르게 습득하셨다.

지난 9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빛고을 타운의 ‘톡톡 빛다방’의 구독자 수는 현재 1,100여 명을 넘어섰다. 제작된 영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유튜브와 빛고을 타운 홈페이지, 빛고을 타운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콘텐츠



홍보를 위해 타 기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오픈 채팅방), 문자 전송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콘텐츠의 개발은 기초적인 건강백세, 평생재무, 대인관계 등을 위주로 평이하면서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주 시청 층은 6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하여 청장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또한 2인 토크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미와 변화를 주고 각 편당 15분 내외의 시리즈물로 분야별 2편을 개발하고 향후 조회 수를 방영하여 호응도를 고려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타운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타운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방송된 프로그램 15개 중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은 가장 먼저 방송된 '톡톡 빛다방 개설회축하 메시지'로 6,8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백세

시대의 밥상머리 1편 2,300회, 라인댄스 1편 2,200회이며, 스마트폰 기초 1편 1,300회, 웃음레크레이션 1편 1,300회, 다이어트 댄스 1,200회 등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타운의 강사님을 영상으로 만나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프로그램을 접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특히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댓글 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프로그램은 단연 스마트 폰 기초 1편이었다. 어르신들의 가장 솔직한 마음과 반응을 보여주는 댓글에는 “알기 쉽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가르쳐주셨다, 특히 스마트 폰의 기초적인 기능인 와이파이, 소리, 블루투스, 비행기 탑승모드, 모바일 관리 등을 알려주셔서 이제 스마트 폰의 기능을 많이 알게 되었다, 80대 노인인데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타운에서 만남이 먼 옛날의 일 같았는데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다려진다.” 등

이 주를 이루었다. 유튜브 강의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어색해했지만 영상강의를 들으며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좋아요, 댓글달기, 구독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신다.

11월 1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 폰, 포토샵, 스위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글문서 작성반, 미디어영상편집반 등 대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10과목 28개 반 319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작은 도서관, 소통방, 상담실 등도 문을 열고 회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유튜브와 빚고을 타운 홈페이지, 빚고을 타운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콘텐츠 홍보를 위해 타 기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오픈 채팅방), 문자전송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콘텐츠의 개발은 기초적인 건강백세, 평생재무, 대인관계 등을 위주로 평이하면서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주 시청 층은 6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하여 청장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추려고 한다.

또한 2인 토크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미와 변화를 주고 각 편당 15분 내외의 시리즈물로 분야별 2편을 개발하고 향후 조회 수를 방영하여 호응도를 고려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부분적이지만 컴퓨터 등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아침 일찍부터 빚고을 타운에는 어르신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특히 임소윤 갤러리에서는 효령노인복지타운 목공체험반의 작품전시회가 열리는 등 어르신들이 힐링하는 기분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다.

빚고을 타운 곳곳에서 곱게 물든 가을 잎들이 저물어가는 계절을 불태우며 아름다운 계절을 실감케 한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지만 오늘도 복지관 로



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톡톡 빚다방’ 영상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나마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크게 감사하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빚고을 타운은 위드(with)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이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빚고을 타운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이어가는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나갈 것이다. ㄹ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했나

김영순_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2020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우리를 덮쳤다. 코로나 19였다. 안온했던 일상이 굿바이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늘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함, 그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다. 경제적 활동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도 중지되었다. 모두가 코로나 19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수많은 문화관련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하는 광주문화재단은 고민이 깊어졌다. 처음엔 무작정 기다렸다. 종식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비대면 영상공연의 일상화

드디어 결정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다. 처방은 비대면 영상공연이었다. 다시 말해 온택트 공연이다. 무관객으로 공연무대를 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이었다. 예술인들은 못내 아쉬워했다. 관객 없이 무대에

서야 하는 그들은 허탈감이 컸다. 그렇게라도 무대에 서는 예술인들은 행운이었다. 아예 무대에 설 수 없었던 2.5단계에선 참으로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름부터였나 보다. 무작정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게.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기획공연의 무관객 영상공연으로 전환했다. 올해 처음 국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가져온 'DJ와 함께 하는 세계음악여행'이 코앞으로 다가들면서 고민이 더욱 커졌다. 여름음악축제로 야심차게 진행하리라 계획했던 것을 자칫 영상공연으로 돌리자면 어떻게 하나하면서 마음이 심란했다. 다행히 그 공연은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진행했다. 대면공연과 비대면 영상을 동시에 소화했다. 단지 적은 수의 관객을 앉혔으나 라틴음악의 진수를 살려낸 나름 괜찮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다. 행운이었다. 왜냐면 8월 둘째 주 5일간의 공연이 끝난 직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대면 공연이 아예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시리즈 공연은 살사, 탱고, 플라멩코, 라틴 재즈, 레게 등을 1일 1테마 형태로 진행되어 라틴음악의 신나는 리듬을 객석은 물론 영상을 타고 광주시민

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해주었다.

코로나 예술배너 프로젝트

광주문화재단은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돋우고 일반시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예술로 치유하는 목적의 예술배너를 계양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 예술배너 사업 '300, 소리 없는 아우성'이 그것이었다. 매마침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시기라는 것과 맞물려 광주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메시지를 쏘아 올리자는 것이었다. 참여 예술인은 3백 명. 예술배너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통해 광주 시민들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예술인들에 다소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1유형 '한 마디'는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한글 기준 30자 이내로 적어주면 된다. 2유형 '한 컷'은 시각 이미지다. 배너로 인쇄할 수 있고 1유형과 같은 공모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시각 예술이라면 회화, 일러스트, 사진, 만화 등 어떤 장르도 표현이 가능했다. 작품 당 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되며, 예술 활동 경력이 1건 이상 있는 광주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했다. 그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높았다. 단 하루 만에 선착순 3백 명이 초과 접수했다. 광주의 5월 하늘에 계양된 예술배너는 코로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려는 광주 예술인들의 의지가 시민에게로 전해지고 전국, 세계로 알려진 소중한 이벤트였다.

코로나 예술인지원사업 잇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 휩싸였다. 활동이 중지된 예술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공연예술계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려는 지원사업이 속속 나왔다. 광주문화재단은 그에 발맞춰 여러 지원사

업을 펼쳤다.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2억2천7백만 원) 온라인예술극장(4억 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6억여 원) 코로나 19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사업(3억 원) 등이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긴급 수혈되었다.

그 외에도 연초에 잡혔던 여러 사업들을 취소하지 않고 번개팅 행사로 또는 비대면 영상공연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플랜 B와 C까지 세워졌다. 여차하면 플랜 B와 플랜 C로 전환해 진행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올해 기획공연 60여개의 꼭지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중이다. 월요콘서트, 열린 소극장, 우수기획초청공연, 삭은스크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돌렸다가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공연으로 기획공연을 이행하고 있다. 중간 중간 몇 차례 코로나 19로 인해 아예 문을 닫기도 했었다. 조금 완화되면 관객 수를 줄였고 그도 안 되면 무 관객 비대면 온라인공연으로 추진했다. 이제, 코로나 1단계, 다소 고단했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적은 관객이나 무대와 객석의 호응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 코로나 19의 극복과정이 오히려 연약했던 우리 예술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듯도 하다. 언제나 하던 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술이 가진 창의의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코로나 19, 예술계에 또 다른 과제를 내렸다. 이 상황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거, 워드 코로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성평등의 관점으로 본 오늘날의 사회



백희정_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코로나 19가 바꾼 일상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공간을 대신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가족 구성원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정 내 돌봄과 양육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여성의 일의 양과 비례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고 가정 내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정에 주어졌다. 장을 봐야 하는 횟수나 비용이 증가되었고 가사노동의 양과 강도도 높아졌다. '일시 멈춤'이 된 학교를 대신해 양육자들은 학습과 돌봄 공백을 고스란히 떠안고 보호자 역할은 물론 학습 교사, 생활지도 교사, 조리사, 친구의 역할까지 해야 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아이를 '온종일' '안전하고' '춤춤하게' 돌보겠다는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무색하게 되어버린 셈이다.

#성별에 따른 '고용 타격' 격차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

체 취업자 수도 39만2천명이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격차는 뚜렷했다. 올해 9월까지 남성 취업자가 10만9천명이 줄 때 여성 취업자는 훨씬 많은 28만3천명이 줄었다. 줄어든 전체 숫자의 70%에 달하는 숫자다. 여성 일시휴직자도 46만9천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만7천명이 증가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고용 충격은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온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업종인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돌봄 부담을 여성들이 떠안으면서 35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여성 취업자가 육아와 가사, 돌봄을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투 이후 한국 사회

2018년 7월 한국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불만을 표하며 거리로 나선 여성들의 분노로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2015년 '강남역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경찰

의 ‘편파 수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여성들을 해화역에 모이게 했다. 인터넷 카페가 주도해서 개최했다는 것도 이전 시위와 다른 양상이거니와 젠더 의제 사안으로 6만 명이라는 역대급 대규모 시위도 놀라웠다. 이들은 어쩌다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차별 문제에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볼 ‘작정’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

여전히 돌봄 문제가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워킹맘들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돌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성차별적 구조는 사회적 약자를 향해 또 다른 차별을 파생시키고 안전을 위협하고 좋은 일자리를 빼앗으며 결국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다.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이 늘어나면서 돌봄으로 야기된 스트레스가 높아져 이것이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 나라의 가정폭력을 증가시켰으며 여성들의 정신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여성의 돌봄 부담이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여성의 자살율도 증가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시 2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가 예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여성 자살률만 증가한 것은 통계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인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1인 여성 가구가 많은 20대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밀려나기 쉬운 취약 계층인데다 비대면의 확산으로 사회적 유대감마저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남성과 여성의 삶의 경험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바라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여성과 남성의 다른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이고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성인지 관점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불평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성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성차별적인 고용, 노동,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돌봄의 의무를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지,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성 평등의 가치는 우리 삶의 기본 값이 되어야 한다. ‘불편’ 하니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문화가 규정한 성 역할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니 말이다. ♪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다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윤만식 광대가 들려주는 지역문화운동 40년 이야기’



다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윤만식 광대가 들려주는 지역문화운동 40년 이야기’가 지난 30일(금) 임직원 및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윤만식 광대가 들려주는 지역문화운동 40년 이야기’는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이 걸어온 진보예술 운동의 길에 대해 듣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문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작년부터 우리 재단이 임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 광주 숨결 찾은 탐방으로 마무리



지난 10월 6일(화) 개강하여 총 7회 강좌, 1회 워크샵, 2회 답사를 마친 뒤 11월 17일(화)에 광주 숨결 탐방을 끝으로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시민대학은 광주학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강생을 축소해서 진행하였으나, 광주의 숨결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조직

문화지 『창』 겨울호(통권 51호) 기획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0호) 평가 및 겨울호(통권 51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화)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내, 외부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재단의 속살과 미래〉, 전·현직 편집위원장이 참여한 특별 대담 등이 『창』 통권 50호를 기념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는데 자평하고, 향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담론의 형성과 지역의 문화현장 곳곳을 소개하는 알찬 내용으로 지면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2020년도 제 2차 운영위원회 이모저모



지난 9월 23일(수), 2차 운영위원회가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의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광주시립

극단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대책위〈전/일방 부지 대응을 위한 시민대책위(준)〉〈아특법 개정안 발의 관련 지역 사회 대응〉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선행적으로 각 현안에 따른 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후속조치는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재단 임원과의 소통과 통해서 추진토록 권고하였다.

2020년도 제 11차 임원회의 개최



2020-11차 임원회의가 지난 11월 18일(수)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2020년 후원의 밤 취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위해 흔쾌히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였으며, 12월 가장 바쁜 시기임을 감안하여 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는 송년의 밤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규 이사장 추천은 부이사장단과 상임 이사에 위임하며,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연석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연대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 출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가 지난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최근에 드러난 광주시립극단의 비상근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노동인권 유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광주시립극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한편, 대책위에는 우리 재단을 포함하여 지역의 예술, 노동, 여성, 시민문화단체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 1차 준비위 열려



(가) 전일방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 1차 준비위원회 모임이 9월 14일(월) 우리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책위 위상과 역할 및 주요사업, 참여 범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우선은 차기 모임에서 준비위원이 참여하는 학습을 통해서 전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내용에 대하여 공유하고, 대책위의 이름과 목표,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 방향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책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박재만 시민협 상임대표와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공동 간사로 이기훈 지역문화 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정현 광주로 이사, 김지원 광주ngo 센터 사업팀장을 선임하였다.

2020 생통강좌 군산/전주 문화탐방으로 마무리



재단소식

‘문화도시 광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0년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동강좌가 9월 16일(수) 첫 강을 시작으로 25일(금) 군산/전주 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좌는 지난 7월, 광주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문화도시 광주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된 시민문화강좌였다. 문화탐방은 군산 해망굴, 월명공원-채만식 문학비, 동국사와 전주의 풍남문, 한옥마을 순으로 진행되었고, 전체 일정에는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의 엄수경 대표가 문화해설사로서 동행하였다.

광주문도협(간사단체)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모임’ 열려



지역과 경계를 넘은 교류 기반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모임이 지난 10월 15일(목)에 대구에서 열렸다.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대구시민문화단체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문화협회와 대구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간담회와 핫플레이스 탐방, 소통과 교류 시간으로 알차게 꾸려져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광주문도협(간사단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포럼 열려



‘문화관광도시 광주! 필요충분조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주

제로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 포럼이 지난 10월 28일(수) 오후 3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올해 7월에 광주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광주관광재단 출범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이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은 관광재단이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국가인권교육원 광주 유치를 위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국가인권교육원 광주 유치를 위한 비상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지난 11월 9일(월) 5·18 민주광장에서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우리 재단은 국가인권교육원 과정의 광주시의 전략부재와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가인권교육원은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대책위에 참여해서 연대와 협력 활동을 진행키로 하였다.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협약식 열려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 협

약식이 지난 11월 16일(월) 11시 10분에 전일빌딩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0월 중순에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 지원포럼, 5월 단체, 문화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약체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시민협약체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론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



1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가로 막는 ‘또 다시 새누리당! 국민의힘’ 규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열렸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박신영(소설가) 편집위원, 에세이집 『내 인생의 노을』 출간
 신안 출신 소설가 박신영 씨가 에세이집 『내 인생의 노을』(시와 사람 간)을 출간했다. 총 4장 50여 편의 에세이로 구성된 책은 유년을 기억하며 어머니에 대한 아름답고 따스한 사랑과 행복한 추억을 그리는 내용으로 아직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전한다. 에세이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들이 읽는 즐거움과 정감을 더한다. 박 작가는 “유년의 천국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해 주었으며 사는 동안 기쁨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주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엮어내기엔 내 언어는 턱없이 미숙하고 늘 서투르다.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고 닦아서 한줄 한줄 조심스럽게 엮어 세상에 내놓은 기분이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 <전남매일> 발췌



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학과 교수) 부이사장, 광주교총 13대 회장에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3대 회장에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가 당선됐다. 김 교수는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부회장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남금 동강대 교수(수석부회장), 박희복 광주 송일중 교장, 최규남 광주 양동초 교장이 선출됐다. 김 교수는 전남대 국사교육과, 전남대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정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위원,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용역 책임자,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김 교수는 “경청, 소통,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교권 회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일보> 발췌

진시영(미디어아트 작가) 운영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광전당’ 3차 전시 진행

이번 전시에서는 진시영 작가의 융복합 외벽영상 ‘빛의 정원’과 해외에 위탁해 제작한 티티아 엑스(Titia Ex)의 ‘우주의 꽃’을 새롭게 선보인다. ‘빛의 정원’은 정육면체 건축 구조물에 미디어아트와 무용, 음악을 결합해 인간이 파괴한 자연과 무너뜨린 평화가 정화를 거쳐 회복되는 과정을 담았다. 전시는 6일

회원소식



부터 25일까지 개최되며 융복합 공연이 4회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태영 전당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가 시민 모두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더팩트> 발췌

허달용(화백) 회원, 허달용 개인전, ‘猫情’ … ‘고양이를 그리다’



화가 허달용 작가의 개인전 ‘묘정(猫情)’이 광주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4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허달용 작가가 고양이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과 풍경화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작가는 50여 점의 고양이 작품을 통해 행복, 기쁨, 사랑스러움, 위태로움, 걱정 등을 투영했다. 허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그동안 20여 회의 개인전과 기획전, 초대전에 참여했다.

- <광주소식> 발췌

김향득 초대전 “불혹의 발자취”



김향득 작가의 초대 사진전이 12월 1일 오후4시부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광주를 대표하는 ‘5월 작가’로 대동고 3학년이었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교고생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해 5월 27일 새벽 계엄군에 붙잡혀 2개월동

안 투옥됐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와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현장을 찾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5·18민중항쟁 추모탑 사진전’, ‘풍경이 아름다운 5·18사적지 사진전’, ‘불편한 진실 5·18사적지 사진전’, ‘Remember 4.16~5.18’ 등 매년 개인 사진전을 열고 있다.

주홍(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광주 서구 제6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 온라인 진행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은 24일 ‘서(書)’로 채우다(위로·나눔·치유)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6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랜선 개막방송으로 개최하며, 모든 프로그램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서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 진행하며, 개막프로그램은 주홍작가의 ‘위로와 치유’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을 시작으로 5·18독서챌린지 시상식, 서구청장과 함께 책수다 등으로 진행된다.

- <뉴스웨이> 발췌



김정희(시인) 편집위원장, 두 번째 시집 『섬이 물꽃이라고?』 펴내

김정희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섬이 물꽃이라고?』를 펴냈다. 8년 만에 펴내는 이 시집은 나이 들면서 만나는 시인의 쓸쓸함이 묻어나고 지난간 시간들의 그리움을 새벽별처럼 새겼다. 또한 그동안 백양사, 정암사, 빙월당, 완사천, 지리산, 둘레길, 다낭, 소록도, 앙코르 앳트, 만귀정, 사성암, 월정리, 양림동 등 여행을 통해 얻은 시인의 서정적인 감정들을 형상화해 시로 표현했다. 첫 번째 시집이었던 『푸른계단』에서는 희망적인 상황에 꿈을 가져보라는 시도를 했고, 두 번째로 펴낸 『섬이 물꽃이라고?』 시집은 시인의 경험을 엮어 내 더욱 애착이 간다. 지난 1년동안 제주도 월정리에서 거주했던 기억을 꺼내 ‘월정리 연가’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명란(시인)이사, 늦깎이 문학도들과 『은발의 향기』 11집 출간



뒤늦게 문학의 참맛을 알게 된 어르신들이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시로 풀어냈다.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이곳 문학반 회원들이 『은발의 향기』 11집을 출판했다. 문학반 강사인 이명란 시인의 지도로 늦은 나이에 시인의 꿈을 이룬 회원들이 시를 향한 열망과 노년의 정서적 서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분기별 30명씩 회원들이 참가하는 이 문학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물을 엮어 해마다 한권씩 『은발의 향기』를 펴내고 있다.

노성태(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이사, 광주교육연수원, ‘장흥 안중근 루트 역사문화 직무연수’ 성료



광주교육연수원이 19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장흥 안중근 루트 역사문화 직무연수’를 성료했다. 연수는 지난 19일 1기(초·중등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24명 대상)와 21일 2기(초·중등 교사 24명 대상)로 나눠 진행됐다. 22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역사의식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안중근 의사의 삶을 조명하고 사당, 동상, 송모비 등 그를 기리는 흔적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광중 최성은 교감은 “코로나19로 현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 장흥 해동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연수가 됐다”며 “다음에 꼭 장흥 해동사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연수원 양숙자 원장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 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에 가까운 간접 체험방식을 통해 역사문화 현장직무 연수를 활성화해 올바른 역사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한국〉발체

조은윤(작가) 편집위원, ‘온라인 문학전시’로 시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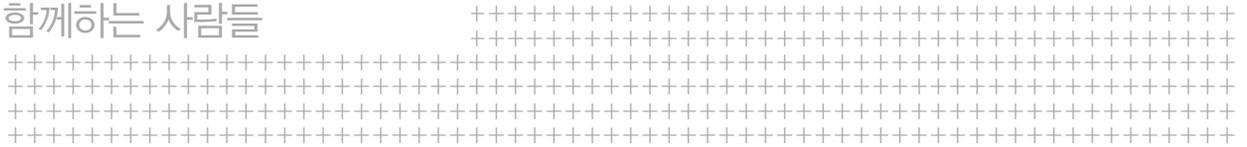
광주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작가들로 구성된 문학전문예술단체인 ‘공통점’은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작품 하단에 글자 수와 줄 수를 캡션으로 넣는 등 문학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온라인 문학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통점 멤버인 김병관, 김현진, 조은윤씨가 기획과 일러스트 제작을 각각 맡았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조은윤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이 회복되는 한편, 지역 독자들의 문학예술 향유와 지역 내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발체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이양재(회사원)
- 김일중(문화시민, 전 교수)
- 김영선(생태해설가)
- 최영만(문화시민, 전 교수)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편집 주간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헌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운영위원〉

구용기 전)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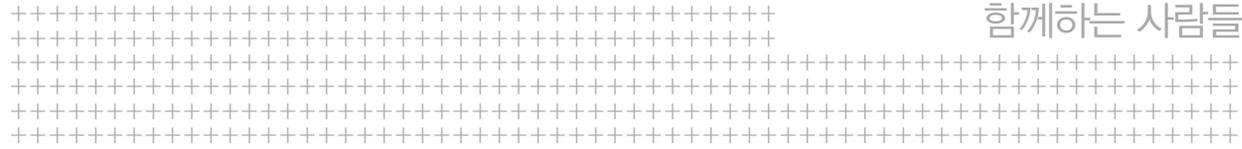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천형욱 변호사

최화용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수아 청년인턴

신혜람 청년인턴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간사단체)

김여정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 주간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조운윤 시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현존 광주지역 최초 아파트이자 마
을공동체 운동이 시작된 광천동 시민 아파트가 사
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철거 또는 부분철거, 보존하는 방식 중 아
직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심도있는 논
의가 필요하다.

이곳은 1980년 5·18당시 김영철, 윤상원 열사들의
활동공간이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

편집 후기

달에 묻었네/서넛 초승달 속에
그대를 묻어 보냈네/옛 노래처럼

.....

달에 보냈네/떠오르는 달에
그대를 묻어/보냈네 꽃처럼
옛 노래처럼

- 김준태 시인의 「월장(月葬)」 중에서

다시 겨울입니다. 월장(月葬), 달에 묻는 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그대’를 불러 나를 달래는 가슴 시
린 이 詩를 떠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일상을 멈추게 했던 올 한해 바이러스의 창궐은 폐허 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 맑은 각성
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니 겨우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경건함. 세계라
는 둥근 원의 연결...

한 해의 창을 닫으며 이번호에는 ‘위기의 시대 2020, 광주에 묻다’를 특집기획으로 다루었고 문화예술계
의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의 변화된 지형과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바라보아주신 독자 분들과 필자 분들께 새삼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